

강해진 참여정부 지속가능발전위, 15일 출범

(서울=연합뉴스) 기자 = 한층 강화된 제3기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새로 출범한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참여정부의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 77명이 오는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위촉장을 받고 새롭게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신임 위원장에는 지난 7월 25일 내정된 서울대 고철환교수(해양학)가 임명된다고 덧붙였다.

3기 위원회는 국가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자문을 강화함과 아울러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갈등해결시스템 구축과 기존 갈등해결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정 등을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했다.

지속위는 이미 지난 10월 4일부터 갈등해결정책 연구팀을 구성, 갈등해결시스템에 대해 연구를 진행해 내년 2월까지 그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지속위는 또 국정과제 추진위원회로서 정기적인 보고를 통해 대통령에게 지속가능발전 관련 주요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직접 회의에 참석,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위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지속위는 기존의 서울 중심, 전문가 중심 위원회의 틀을 탈피해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한 48명과 대통령이 직능별로 위촉한 인사 등 모두 77명의 위원을 위촉, 민간위원이 21명이던 2기 위원회에 비해 규모가 대폭 커졌다.

지속위는 또 우리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이 지체된 중요한 원인이 하향식 정책결정과 폐쇄적 정보소통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물, 에너지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핵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밑에서부터의 정보소통형 정책 프로세스를 개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ryu625@yna.co.kr

(끝)

<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31213 1055 KST